

광주·전남 내고장 제품 애정 아쉽다

기아차 광주시장 점유율 33.7% ... 현대차에 뒤져

금호타이어는 경쟁사와 엇비슷, 연고지 효과 못누려

“울산에 가면 현대차만 보여요. 그런데 광주에서 기아차의 지위는 낮은 편이죠.”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지역 대표 기업에서 생산되는 차량 및 타이어의 지역 시장 점유율이 경쟁 회사에 다소 못 미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다 금호타이어가 연말 5년간의 워크아웃 졸업을 앞둔 만큼, 지역민의 ‘내 고장 생산 제품’에 대한 애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광주에 생산 공장이 있는 기아차의 광주지역 올해 시장 점유율(마켓쉐어)은 33.7%로 조사됐다. 차량 10대 가운데 3대 남짓만 기아차인 셈

이다. 같은 그룹속이긴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현대차의 점유율이 38.0%로 5%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 광주에서의 기아차 점유율은 매년 하락중이다. 지난 2010년 40.2%로 현대차(36.5%)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았던 기아차 점유율은 2011년 38.8%, 2012년 38.3%, 2013년 37.0%까지 떨어졌으며 올해에는 30% 초반까지 하락했다.

기아차의 전국 평균 점유율은 27.7%로, 광주지역 점유율이 전국보다 6%포인트가량 높았지만 연고를 둔 기업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경우,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이 59.5%에 이른다.

광주와 곡성에 국내 생산공장을 둔 금호타이어 역시 우리 지역에서 특별한 연고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호남권 시장 점유율은 40%대로, 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30%)보다 10% 포인트가량 높긴 하지만 큰 차이로 따돌리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한국타이어의 점유율이 40%대로 금호타이어보다 높았는데, 올해 들어 역전에 성공한 것이 위안거리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인 2009년 이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격차로 한국타이어를 따돌렸지만 워크아웃 이후 한국타이어에 시장을 내준 채 좀처럼 확고한 지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저조한 지역 생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두고, 지역 산업계는 소비자인 사람 한 사람의 애정이 지역산업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타이어는 광주시의 정책과 관련된 산업인

만큼 ‘연고 기업’의 메리트를 안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지역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대기업 및 협력업체 성장에 꾸준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구입 시 금호타이어를 장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보다 우위에 서려면 해당 기업들의 지역 밀착 경영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이 지역민을 위한 특판 행사 등 시장 점유율 상승에 힘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벤트성으로 매년 수차례에 그치고 마는 게 대부분”이라며 “지역민에게 취업문을 더 넓히고, 연고 기업을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도 배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04.13 (-16.23)

▲ 금리 2.13% (+0.01)

▲ 코스닥 534.15 (-3.94)

▲ 환율 1086.70원(-12.40)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신수원씨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신수원(57·사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16일 이학영 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되는 중부청장에 김재웅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해남 출신으로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을 역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정착을 이끌어 냈으며 고소특전문직의 현명매출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무화로 세원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장에는 김형중 중부청 조사4국장, 대구청장에는 남동국 서울청 조사3국장 임명됐다.

나동균 광주청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명예퇴직하는 송성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후임에는 서진욱 징세법무국장, 징세법무국장에는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을 각각 기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고공단 인사에 이어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북 교량·터널 2116곳

익산국도관리청, 안전 점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16일 전남·북 지역 국도 구간 교량·터널 등 2116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설물 일제 점검은 국도 교량 1545개소를 비롯, 터널 113개소, 기타시설물 458개소 등이 대상이었으며 시설물 안전상태와 아스팔트 포장 등의 노면 패임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익산국도청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즉시 보수가 가능한 노면 포장 패임, 터널 조명기구 교체 등 53개소는 즉시 조치했으며 나머지 47개소도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현대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출시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공식 출시 행사에서 새 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차는 27개월 동안 총 1800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됐으며 4당 18.2km(16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자랑한다. <현대차 제공>

광주·전남 서비스업 성장세 더디다

통계청 '16개 시·도별 동향'

생산증가율 전국 최저 수준

광주·전남 지역 서비스업이 더딘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임대업과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성장세를 보인 반면 교육과 예술, 스포츠·여가, 유통 등의 감소세가

이저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6개 시·도별 3·4분기 서비스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증가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기록했다. 광주는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이 2.1%로 6개 특별·광역시 중 울산(1.9%) 다음으로 낮았고, 전남은 1.2%로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생산증가율 2.6%를 밑도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3.8%로 가장 높았고 충남(3.5%), 대구(3.0%), 인천(3.0%), 제주(3.0%), 서울(2.6%), 부산(2.6%)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9.3% 증가한 것을 비롯 ▲보건·사회복지(8.2%) ▲금융·보험(7.5%)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3.2%)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하수·폐기물처리업(13.9% 감소, 이하 감소율) ▲예술·스포츠·여가(5.8%) ▲교육(2.1%)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남 역시 부동산·임대업이 12.8% 증가로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9.3%), 보건·사회복지(5.5%), 금융보험(3.7%), 교육(2.8%) 등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뒀다. 반면 숙박·음식업(6.1% 감소, 이하 감소율)을 비롯해 전문·과학·기술(4.3%), 하수·폐기물처리(2.9%), 도소매(1.6%), 운수(1.4%) 등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 일 글

“농업인 경쟁력 확보 ‘행복한 농업시대’ 열 것”

강남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취임하는 강남경(54) 신임 본부장은 “FTA 발효 등으로 농업이 큰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농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업시대’를 만

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주 출신인 강 본부장은 전남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6년 농협에 입사해 완도군지부장, 전남본부 경영지원부 부본부장, 중앙회 구례교육원 원장, 중앙회 상호금융수신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기림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입주자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